

4일 Market Index	
코스피 2500.94 (-0.46)	코스닥 845.06 (+1.88)
금리 (미국 9년) 3.210 (-0.071)	환율 (원·달러) 1322.80 (-15.40)



“韓美日 협력 긴요... ‘후쿠시마 오염수’ 韓 시찰 합의”

韓日정상회담

韓 반도체 업체-日소부장 기업
견고한 공급망 구축 공조 강화
우주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논의
G7 정상회의 계기 협력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다시 만나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인적교류·첨단산업기술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약식회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회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실무 방일 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서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서틀외교 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실무 방한하면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12년 만에 정상 서틀외교가 재개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졌으며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현장 시찰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과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순으로 진행됐고, 회담 후 양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

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3월 실무방일 당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범과 관련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기 위해 미래세대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협력과 관련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글

로벌 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히로시마 방문 계기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인 원폭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외무·방위당국 안보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하기로 논의했으며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측이 한국의 오염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JY, ‘제2반도체’ 바이오 육성 네트워크 가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글로벌 바이오 리더들 연쇄 회동 협업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제2의 반도체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JY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했다.

7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동부에 있는 글로벌빅파마와 바이벤처 인큐베이션 회사 등 글로벌 최고 바이오 업체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호아킨 두아토 J&J CEO ▲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 ▲케빈 알리 오가는 CEO와 각각 만났다.

이들 기업은 이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BMS는 2013년 삼성에 의약



품 생산 첫 발주를 해 삼성 바이오 사업 성장 토대를 마련해준 기업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모두 삼성에 매각했으며 삼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럽지역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J&J는 창립 140주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최고 바이오 제약사다.

특히 플래그십 누바 아페얀 CEO는 모더나 공동 설립자로, 삼성과 mRNA 백신 생산 계약을 통해 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플래그십은 삼성과 유망 바이오 벤처 발굴 및 육성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10여년전 바이오 사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주요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 이를 통한 미래 성장 산업 선점과 압도적인 제조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1위 CDMO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바이오 업계 리더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는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빅파마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제약사 CEO들과 만난 후 북미 판매법인 직원들을 만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과감하고 끈기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韓美 금리차 1.75%p ‘역대 최대폭’

물가나 경기나... 섹범 복잡한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역대 최대폭인 1.75%p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지난 3일(현지 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4.75~5.00%였던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p 올렸다. 지난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여전히 높은 수준

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인상 이유를 밝혔다.

◆ 한미 금리차 1.75%포인트로 확대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p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폭이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시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8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금주 ‘법원의 시간’ 돌입 /사진 뉴스1
▲ 여당 ‘민주,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 대한민국 수치’

▲ 시도때도 없이 뻑!... ‘공해 수준’ 재난 문자 줄어든다
▲ 민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에 “한동훈 엄정한 수사 나서야”



▲ 한 총리 “영국왕 대관식서 만난 정상들,尹 노래 전 세계 화제” /사진 뉴스1
▲ ‘자강론이나 신당론이냐’... 정의당, 6월말 재창당 노선 결정